

봄 비

김 석 표(시인)

천사의 목소리인 양
너는 내 가슴 속으로 스민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황무지에 무한한 생명의 기를 불어넣듯이
세상은 온통 푸르름과
환희의 기쁨으로 너무도 찬란하다

누구의 간절한 기도의 발원이었던가
하염없이 분출되는 알 수 없는 이 느낌

예닐곱 아이의 청초한 눈빛처럼
너무도 맑아서 거룩하다

봄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식시키고 천사처럼 다가와 속삭였다. 한마디 마다 긴 겨울 동안 메말랐던 갈증을 해소하고 푸르름과 환희의 기쁨으로 들렸다. 누가 빌었기에 끝없이 분출되는 이 느낌은 너무나 맑고 거룩하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낭비가 되는 행위 모두를 막으면서 쥐 잡듯 조였던 단속을 풀어주는 순간이다. 내면에 감추고 비밀리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을 위하여 분주하게 쌓아둔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여기저기에서 물 마시는 화답의 소리가 활발하고 힘차다.

봄비는 미적거리고 망설이는 어떤 존재에 대한 독촉이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다. 한 해의 출발에 시동을 걸어 끝까지 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응원이다. 어쩌면 현실을 도피한 현대인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인지도 모른다.

성묘를 하고 와서

한 돈 회

노인이 되니 별초를 하러 다니거나 성묘를 하러 가는 일이 쉽지가 않다. 돈을 주고 별초를 하고 인증사진을 받아 별초한 것을 확인한다. 가서 산소를 둘러보는 일이 적어졌다. 지금은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시대이다. 별초 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내가 돌아보아야 산소는 부평가족(추모)공원에 있는 할머니 산소, 강화 화도에 있는 부모님 산소, 삼산(석모도)에 있는 선산이다. 몇 년 동안 못 다녔는데 금년에는 가서 보았다.

금년에는 추석기간 동안에 공원묘지 성묘를 금하였기 때문에 추석 전에 부평가족 공원을 가보았다. 나와 아내는 가서 둘러보았다. 동생이 돈을 주고 때를 입히고 별초를 부탁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덤은 잘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 할머니, 큰집 할머니 두 분의 묘소가 있다.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 오래 된 무덤이다. 그때는 지관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았다. 전망이 좋고 명당 같다. 그때는 인천시민은 그 공동묘지에 자유롭게 묘를 쓸 수 있었다. 지금은 만장이라 못 쓴다. 언젠가 묘지 분양 공고를 보니 천만 원, 이천 만원을 주면 사서 쓸 수 있는 모양이다. 화장해서 쓰는 가족묘지이다.

그간 교통이 발달해서 부평가족공원을 가기가 수월해졌다. 지하철이 가족공원 입구에 있다. 부천 역곡역에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 공원은 그 동안 잘 가꾸어서 길도 나고 깨끗하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묘지를 보는 음산한 공원이 아니라 연인들이 걸어서 다니는 공원이 되었다.

작년에는 안 가고 금년에 갔더니 무덤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았다. 비석을 보면 된다. 할머니 무덤이 한 쪽 산등성이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도 좋아졌다. 돈을 쓰니 잔디도 있고 별초도 해놓았다. 나는 무덤 앞에 엎드리고 그 동안 못 와서 미안하고 집안이 화평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내는 살아서 보지도 못한 할머니라고 하면서 잘 계시라고 말하였다.

일을 마치고 공원을 둘러보니 눈에 보이던 수많은 무덤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무슨 건축물을 짓고 있다. 추모의 집을 만드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덤을 파내고 정비하는 듯 보였다. 할머니 산소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산소라고 영원 할 것인가. 그 동안 공동묘지를 무료로 이용했으니 감사할 일이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는 강화 화도면에 있는 산에 있다. 그 동네 사람에게 돈을 주고 별초를 하고 돌보게 하였다. 몇 년째 가보지 못하였다. 한 때는 자주 갔는데 노인이 되니 가기가 힘이 든다. 아내가 운전을 잘 하였는데 70대 중반이 되니 장거리 뛰기가 겁이 난다.

같이 산소에 가자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층에 마주보고 살다 이사 간 노모 씨였다. 그들 부부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웃사촌으로 서로 두우며 살았다. 지금은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서 살고 있다. 그분은 철도청을 다니다 퇴직하고 지금은 일반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다. 기술자라서 취직이 잘 된다. 노씨 부부는 토요일 날은 자가용으로 멀리 구경 다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가끔 우리 내외도 동승해서 같이 구경을 다닌다.

강화도 교동, 삼산(석모도)도 같이 갔다 온 일이 있다. 노씨는 나의 사정을 알고는 강화 화도 아버지 산소에도 같이 가고 삼산면 상리에 있는 선산에도 같이 가서 보자고 한다.

지난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9시경 그분의 자가용차를 타고 두 가족 내외가 강화로 떠났다. 교통 체증 없이 화도 선수에 도착하여 선착장에 차를 세웠다. 산으로 나의 부모님 산소를 찾으러 올라갔다.

산 아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전에 논, 밭이던 곳에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주변이 바뀐 것이다. 산에는 나무들이 우거지었다. 있던 길도 없어지고 없던 길도 생기었다. 출발부터 다른 골자기 길로 들어서서 헤매 이었다. 전에 못 보던 둘레 길도 있다. 부모님 산소위에는 큰 바위가 벽처럼 있었는데 나무가 울창해서 보이지 않았다. 노씨는 내가 너무 오래 만에 와서 부모님이 별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별초해 주는 노인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다시 올라가서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무덤 주변에는 잔디도 죽고 무덤에는 풀도 없었다. 그 동안 열심히 다니었는데 이렇게 못 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쓸 때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무덤을 쓸 수 있었다. 대신 경로당에 후원금을 내고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을 지불하였다. 지금은 산에 매장을 하기가 어렵다. 산 주변을 보니 새 무덤들이 더러 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산에 쓰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둘레 길을 걸으며 자연 구경을 하고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 왔다. 부천까지 오는데 더러 막히기도 하였으나 수월하게 왔다. 성묘도 하고 자연 구경도 하고 좋은 날이었다.